



경 찰 청

함께
대한민국

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,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, 전국고속버
수신 스운송사업조합장,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,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
합회장
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착용 관련 운송조합 및 업체
요청사항 전달

1. 요청 배경

대중교통 '마스크 착용 의무화'에 따른 승차거부 시비 및 운전자 폭행시 경찰의 엄
정수사 방침 및 112 신고요령 등을 전달드리니, 귀 협회에서는 전국의 운송 협회
및 업체에 관련 사항을 전파·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.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운전자 폭행 등 사례

가. 5. 26. 코로나19 방역수칙의 일환으로 정부가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
의무화함에 따라,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대중교통 운전자를 승객이 폭행하는
사건이 종종 발생

【5. 26. 대중교통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】

-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마스크 착용거부 시 승차거부
(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거부 시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 한시적 면제)
- 대화 자제, 최대한 거리두기, 혼잡 시 다음 차 이용, 기침 시 입과 코 가리기 등

나. 최근, 6. 20. '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'는 이유로 버스 기사의 목을 물어뜯고, 이를
말리는 행인을 폭행한 50대 남성을 구속

※ 마스크 문제로 운전자를 폭행한 피의자가 구속된 첫 사례

3. 경찰의 엄정수사 방침

가. 경찰청은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'19년부터
매년 집중단속 중

※ '19.3.4. ~ 5.2. 2,198명 검거(76명 구속) / '20.2.17. ~ 5.26. 2,377명 검거(11명 구속)

나. 특히, 5. 26.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 착용 이후 서울에서만 마스크 착용을
거부하며 운전자 등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 840건을 접수해, 그 중 43건을 폭행·
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이고

▶ 112신고(840건) - 버스 537건, 택시 176건, 지하철 127건
 ▶ 형사입건(43건) · 통고처분(12건) / 未입건 時에도 엄중경고 조치
 ※ 6. 22.(월) 11:00경 기준 통계

-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上 운전자 폭행·협박(5년 이하 징역), 운전자 상해(3년 이상 징역) 등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여 강력팀에서 전담수사 하도록 하고, 책임이 중한 사안은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할 방침임

4. 전국 운송 조합 및 업체 요청사항

- 가. 각 지방경찰청·경찰서에서도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나 오늘 간담회 내용을 전국 버스·택시 연합·조합 회원에게 전달하고, 경찰과 운송조합 간 핫라인 구축
- 나.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운전자 등 폭행 발생 시 적극적으로 112 신고하고, 원활한 수사를 위해 블랙박스 영상·진단서 등 제공

【신고 요령】

▶ '112' 전화번호를 누르고 피해 행위(기사·승객 폭행 또는 협박 등)와 발생 장소(인근 정류장 또는 노선번호 등 정보제공) 등을 말함
 ▶ 운전자가 직접 신고가 곤란한 경우 다른 승객에게 도움을 요청
 ⇒ 특별한 신고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, 육하원칙에 입각한 정보제공이 중요함

- 다. 현장에서 112신고가 곤란할 경우에는 사후 고소를 통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위법 사항을 확인하여 형사입건할 수 있도록 협조
- 라. 이에 추가로, 버스·택시 대표 운송조합을 중심으로 '사람 우선'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범정부 합동 교통안전대책 추진에 동참을 요청함

▶ (사람 우선 홍보) △차량에 보행자 보호 홍보스티커 부착 △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문화 확산을 위한 자체 계획 마련
 ▶ (교통법규 준수) △안전속도 5030 홍보 및 속도준수 △승객 포함 전좌석 안전띠 착용 강조 △음주·숙취 운전 절대금지 △스쿨존 주변 불법주정차 금지 등
 ⇒ 지역 교통안전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조합원 대상 정기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운송조합 주도적인 교통사고 예방 활동 발굴·추진을 요청

끝.